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 안에서 「녹색탑」이 차지하는 위상을 검토 한 후, 이효석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로서의 미적 감각이 「녹색탑」에서 재현되는 양상을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1939년부터 발표된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선의 “전통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문화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과정을 통해 일본과는 구별되는 ‘조선적인 미’를 구성한다는 특징이 있다.¹ 그리고 이 ‘조선적인 미’는 지식인 주인공에 의해 그 가치가 진술되면서 단지 조선 사람들이 향유했던 관습 이상으로 독자적인 미적 가치를 지닌 보전해야 할 문화유산의 지위를 획득한다. 「녹색탑」 역시 ‘조선적인 것’이 가지는 미를 논하기는 하지만 다른 일본어 소설들과는 달리 영문학 연구자가 등장하고, 주인공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매개로 영문학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조선적인 것’이 아닌 외래적인 요소, 근대문학의 전범으로 삼는 이효석에게는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서구적인 것’이 소설의 서사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적인 ‘조선적인 것’과 보편적인 ‘서구적인 것’은 얼핏 상반되는 듯 보이지만 일찍이 신행기가 이효석의 향토적 색채를 지닌 작품과 모더니즘 경향의 작품이 모두 ‘근대’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상통한다고 분석한 것처럼², 위에서 언급한 두 가치 역시 한 쪽이 존재하려면 다른 한 쪽의 ‘발견’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상호성을 지닌다는 면에서 상통한다. 「녹색탑」은 ‘조선적인 것’의 아름다움과 같은 미적 감각이 후경(後景)으로 밀려나고, 일본 여성과 조선 남성의 연애가 전면화되어 서사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내선결혼이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은 1921년 <내선인통혼법안>이 총독부령 99호로 성립된 이후이지만, 이 정책은 일시적으로 호응이 있었으나 조선인의 민족적 반발,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차별적 시선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다가 1938년 대륙병참기지화 정책에 기초한 시국대책조사회의 제1의제인 <內鮮一體ノ強化徹底ニ関スル件>의 발표 이후 다시 본격화된다.³ 남성 가장모델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일본의 호적제도에서 여성의 남성의존도는 매우 높아 1939년 이후 국책으로 내선결혼이 장려된 당시에도 일본 여성들은 조선 남성과의 결혼을 꺼렸으며⁴, 조선남성이 일본 호적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일본 여성과 결혼하는 사례도 있었을 만큼⁵ 내선결혼은

1 이효석의 일본어소설에 나타나는 ‘조선적인 것’과 ‘미적인 것’은 작품마다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층위를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후에 다른 원고를 통해 보다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2 신행기, 「李孝石と植民地近代-分裂の記憶のために-」, 『植民地近代の視座 朝鮮と日本』, 岩波書店, 2004, 95-117면 참고.
3 朴慶植, 『日本帝國主義の朝鮮支配』 下卷, 青木書店, 1973, 49면 참고.
4 여성과 가족에서 인용, 중매업자가 조선인을 일본인인 양 속이고 결혼을 성사시켰으나 조선인과 너무 살기 싫었던 여성이 아이를 둘이나 낳고 나서도 도망쳐나온 사례도 있었고(鈴木裕子, 『從軍慰安婦 内鮮結婚 : 性の侵略 戦後責任を考える』, 未来社, 1992, 107면), 내키지 않지만 국책을 따라 조선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내선결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었다.(鈴木裕子, 위의 책, 107-108면)
5 노동목적으로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 남성이 일본인과 불공평한 임금격차에 불만을 품고 내지 호적을 획득하기위해 내선결혼 국책을 이용해 일본 여성과 결혼하기도 했을 만큼 황국신민화 정책 이후에도 호적에 따른 차별은 계속되었다.(鈴木裕子, 위의 책, 110면)

결혼 당사자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녹색탑」의 두 남녀의 연애 성사과정에서 여러 장애물이 등장하지만, 이광수나 한설야의 내선연애 소설과는 달리 두 남녀가 각각 ‘외지’와 ‘내지’라는, 서로 호적이 다르다는 점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두 사람도 서로의 호적 차이를 분명하게 인지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의 출신 차이가 연애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설 안에서 조선이라는 표상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장면은 두 사람의 연애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제3자의 외모를 그럴 때이다. ‘내지’와 ‘외지’의 분할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이효석에게서 총독부 정책에 협력하지도, 저항하지도 않고 총독부 정책에 포섭되지도 않는 ‘제3의 길’을 지향함으로써 전시체제를 돌파해나가려는 자세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녹색탑」에서 나타난 ‘외지인’과 ‘내지인’의 관계를 그리는 이효석의 관점을 고려해보면, 그의 작품 소재가 총독부의 내선일체 정책과 표면상 유사하더라도, 총독부 정책을 옹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녹색탑」이 연재된 『국민신보』는 매일신보사에서 1939년 4월 3일 “반도의 황국신민화”를 목적으로 창간한 일본어 주간지로, 기사는 물론 게재되는 소설들도 황국신민화 정책을 소재로 삼았다. 「녹색탑」에 등장한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간의 사랑은 분명 총독부의 내선결혼 정책을 의식하고 채택한 소재였을 것이다. 그러나 소설의 소재가 총독부정책의 일환이었다고 해서 소설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가 그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940년 4월에 『삼천리』는 당시 유력 일간지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에 소설을 연재하던 네 명의 소설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新聞小說과 作家의 態度」라는 제목으로 실린 설문을 실시한다. 당시 『매일신보』와 『국민신보』에서 동시에 장편소설을 연재하던 이효석은 “「戰爭」을 取扱하시는가”라는 『삼천리』 편집진의 질문에 “取扱하지 않습니다. 作中人物의生活에 隱然中에 그影響이 浸潤될는지는모르나 創作意識에 울리지는 않습니다”⁶라고 답하며 자신의 문학창작이 전시체제정책에 종속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당시 이효석은 조선에서 발간되는 총독부의 두 기관지 모두에서 장편소설을 연재하고 있었으므로, 한편으로는 당시 문인 중에 가장 총독부 정책에 협력적인 문인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삼천리』의 설문에서 위와 같이 전쟁의 상황과 그의 작품세계를 확실히 구별하는 답변을 남긴 것은 매우 흥미롭다.⁷ 그는 총독부 기관지에 소설을 연재하고 있을지라도, 총독부 정책에 영합하면서 그의 창작경향을 억지로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효석의 「녹색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여럿 있으나, 이 선행연구들은 모두 「녹색탑」이 일본어로 창작되었다는 사실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⁸ 그러나 그 당시

6 「新聞小說과 作家의 態度」, 『삼천리』 1940년 3월, 123면.

7 1940년 3월호의 『삼천리』에서는 ‘조선반도’의 바람직한 내선일체를 모색하는 조선의 유명한 지식인들의 논설과(현영섭, 김명식, 인정식, 김한경, 김두정을 필자로 내세운 특집 「「內鮮一體」體內的 朝鮮民衆的 諸問題의 考察」) 생활개선을 강조하는 이광수의 논설과 소설(「生活改善의急務를論함」, 「옥수수」),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부들의 생활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戰爭長期化 「家庭生活」主婦座談會」)가 실린다. 이전과는 달리 분명하게 국책을 선전하는 의도를 담은 글들을 적극 게재하는 『삼천리』의 편집방향 속에서도 이효석은 자신의 작품세계와 전시상황에 거리를 둔다.

8 김윤식, 『일제말기의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김형수, 「이효석, ‘비협력’과 ‘주저하는 협력’ 사이의 문학」, 『인문학논총』 제5집 1호, 2005; 김수영, 「동화(同化)

조선 작가들이 일본어창작을 강요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강력하게 반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언어로 문학을 창작하느냐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⁹ ‘미적감각’이라는 키워드가 이효석 문학 전부를 관통한다 하더라도 창작언어가 가져오는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¹⁰ 또한 언어에 따라 대상 독자가 달라진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대로 이효석의 일본어 창작 작품에는 한국어 소설에서보다 ‘조선적인 것’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므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효석의 일본어 창작이 총독부가 황국신민화 정책의 맥락에서 시행되던 내선일체정책의 시대적 분위기 안에서 창작되었다는 정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효석이 일본어로 소설을 쓰게 된 경위를 고찰한 후,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 안에서 「녹색탑」이 가지는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이 공존하는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의 성격규명은, 미적인 것을 이효석의 전체 소설세계를 관통하는 개념으로 설정하려는 작업과 세계적인 것을 지향하여 황국신민화 정책 하에서도 나름대로의 저항의식을 보였고 해석하는 그동안의 양분된 연구경향을 탈피하여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이 소재와 형식의 측면에서는 총독부 정책과 공존하면서도 전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기이한 양상을 분석해내어, 「녹색탑」을 중심으로 그것이 가지는 의의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저항과 협력의 이분법으로도, 이효석이 시대 현실을 무시했다는 시각으로도 분석되기 어려운 이효석 소설이 가지는 독특한 위상을 규명해내는 작업은 엄혹한 시대현실 속에서도 독자적인 작가 정신을 잃지 않고 작품을 창작해나가려는 조선 문인의 정신적 고투의 일면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 이효석의 일본어소설과 「녹색탑」

이데올로기-그 이상과 현실의 변주」, 『한민족문화연구』 제22집, 2007; 김재영, 「‘구라파주의’의 형식으로서의 소설-이효석 작품에 나타난 서양문화의 인유에 대하여」, 『현대문학의 연구』 46호, 2011; 김대성, 「이효석 문학의 초월적 미의식 고찰」, 『한국문학논총』 제58집, 2011; 김재용, 「일제말 이효석 문학과 우회적 저항」, 『한국근대문학연구』 24집, 2011; 윤대석, 「1930년대 『피』 [血]의 담론과 일본어소설」, 『우리말 글』 51집, 2011. 정여울, 「이효석 텍스트의 공간적 표상과 미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이양숙, 「이효석의 「푸른 탑」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전략」,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5호, 2012.

⁹ 1938년 10월, 新協극단의 「춘향전」이 경성에서 공연되었을 당시, 마침 만주에 있던 하야시 후사오가 경성을 방문하여 그를 중심으로 장혁주, 임화, 김문집, 유진오, 이태준, 유치진, 카라시마 타케시, 총독부경무국도서관장까지 참석하여 이른바 「조선문화의 장래」라는 화제로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조선의 문화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조선어가 가지는 중요성이 논의되기도 한 만큼, 당시 문인들이 문학창작에서 조선어의 중요성을 상당히 깊게 인식했었음을 알 수 있다. 문학에서 조선어 사용에 관한 문제는 재일조선문인들에게도 중요한 화두였기 때문에 장혁주(「朝鮮の知識人達の民族心理」, 『文芸』, 1939년 2월)와 김사랑(「朝鮮文學風月錄」, 『文芸首都』, 1939년 6월) 역시 이 좌담회 이후 각각 문학에서의 조선어 사용에 관한 입장을 밝힌 글을 발표한 바 있다.(渡邊一民, 『<他者>としての朝鮮 文學的考察』, 岩波文庫, 2006, 83-85면 참고)

¹⁰ 같은 정경을 묘사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어와 한국어의 표현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언어를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모국어로의 창작과 외국어로의 창작은 문장의 유려함이나 표현의 적절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기 쉽다. 이효석이 아무리 일본어에 익숙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그의 모국어는 한국어이고, 일본어는 외국어였다. 실제로 그는 한자 대신 일본식 독음으로 된 가게 간판의 뜻을 바로 알아채지 못해 가게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겪기도 했다. (「유도소식」, 『경성일보』, 1940년 4월 6일)

이효석의 일본어소설은 총 일곱 편으로, 그 중 여섯 편이 단편 분량이고 「녹색탑」만이 네 달여에 걸쳐 주간지에 연재된 중편 정도의 분량이다. 「녹색탑」과 「아자미의 장」이 게재된 『국민신보』와 『국민문학』을 제외하고는 그의 일본어소설은 모두 일본에서 간행된 잡지에 게재되었고, 이 잡지들은 일본에서도 ‘외지’ 문제와 조선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잡지들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 이효석이 해당 잡지사로부터 청탁을 받았을 당시, 그 잡지의 성격에 맞는 작품을 청탁받았을 것이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문학을 창작해야만 했었을 것이다. 특히 조선적인 것의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이효석의 일본어소설들의 소재는 이전의 소설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었고, 처음 등장한 1939년 이후에 창작된 소설이라고 해도 한국어로 창작한 소설에서는 ‘조선적인 것’의 아름다움을 논하지 않기 때문에¹¹ 일본어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¹² 이효석의 일본어소설의 ‘조선적인 것’의 기원은 ‘내지’에서 ‘내지’ 일본과는 다른 ‘외지’, ‘조선반도’ 문인의 ‘조선적인’ 문학작품을 보고 싶어 하는 일본인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효석의 소설세계에서 ‘조선적인 것’은 매우 낯설다. 그의 수필에서는 서구적 생활을 즐겼던 그의 흔적을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으며,¹³ 서구 문학에 관한 단상들 역시 자주 등장하고, 그의 문학론에서 문학 일반을 가리키는 말은 언제나 서구문학이며 서구문학을 전범삼아 조선의 문학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심지어 그의 문학에서 ‘조선적인 것’을 그려낸 이후인 1942년, 국민문학을 논할 때조차 등장한다.¹⁴ 또한 그는 내선일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조선 문인들이 자기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개발하기는커녕 외지, 즉 해외의 편집인들의 시각에 맞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향토적인 것’, ‘지역적인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경향을 비판했다.¹⁵

이효석의 위와 같은 태도는 그가 일본어로 소설을 창작하기 전 발표했던 작품들을 고려해보면 매우 자연스럽다. 1939년 9월, 『여성』에 게재된 「향수」에서 그는 전시체제라는 시대적 상황을 빌미로 농토를 황폐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과

11 예외적으로 「벽공무한」의 경우, 한국어로 창작되었으나 소설 안에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논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소설이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당시 일본 총독부가 지향했던 내지의 일부로서 외지 조선이 가지는 특수성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설 안에서 한복이라는 소재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낮으며, 한복에 대한 언급 없이도 서사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고려할 때 한복이라는 표상이 총독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12 이효석의 일본어소설은 주로 한복을 입은 여성인물을 이용하여 ‘조선적인 것’이 가지는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것이 제일 많고(「녹색탑」, 「봄웃」, 「가을」, 「아자미의 장」), 그밖에도 조선의 과거 왕조시대의 유물인 백자 혹은 장검을 이용하여 조선적인 것의 아름다움을 논하는 작품들이 있다(「은은한 빛」, 「가을」). 예외적으로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 중 「은빛송어」는 ‘조선적인 것’의 표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소설이 이효석이 처음 창작한 일본어 소설이고 이 소설 이후에 창작된 일본어 소설에서 모두 ‘조선적인 것’이 형상화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소설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고 일본인 독자들에게 ‘조선문학’으로서 어필하려면 조선만의 특수한 무엇을 찾아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후 소설에서는 ‘조선적인 것’을 형상화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보다 자세한 분석은 추후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 연구에서 보충하도록 하겠다.

13 김재영, 위의 글, 314면 참고.

14 이효석, 「문학과국민성-한개의문학적覺書-」, 『매일신보』 1942년 3월 3일~6일; 이효석, 「私はかう考へてゐる」, 『국민문학』 1942년 4월, 43-46면.

15 이효석, 「문학과국민성-한개의문학적覺書-」(3), 『매일신보』 1942년 3월 5일 참고.

생계수단을 앗아간 총독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그린다.¹⁶ 이효석은 대일본제국건설이라는, 조선 사람들에게 아무런 실익도 가져다주지 못하는 허울뿐인 명분이 그가 즐겨 그렸던 조선농촌의 한가로운 풍경을 파괴하는 상황에 동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1940년과 1941년 사이에 발표된 이효석의 작품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작품 경향과 상당히 달라진 면모를 보인다. 이 시기에 이효석은 국민문학론이 제창된 1942년의 시점에서 비평했었던 ‘조선적인 것’의 창안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1940년과 1941년 전후로는 총독부의 총력전 체제돌입과 내지인의 시선을 내면화한 ‘조선적인 것’의 창출에 비판적이었던 그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조선적인 것’을 형상화한 이유는 그의 ‘내지’ 문단으로 진출하려는 욕심과도 맞닿아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이효석의 작품은 그가 ‘내지’ 문단의 잡지에 그의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하기 전부터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처음 ‘내지’의 잡지에 일본어로 작품을 발표할 시점은 1940년 2월인데, 같은 시기에 신건의 편집으로 教材社에서 간행된 『朝鮮小説代表作集』에도 이효석의 소설 「豚」이 포함되었다. 바로 다음 달인 1940년 3월에 장혁주의 편집으로 赤塚書房에서 간행된 『朝鮮文學選集』에도 이효석의 자역(自譯)으로 「메밀꽃 필 무렵」이 실린다. 이효석의 소설 중에는 도시나 이국적인 소재를 대상으로 창작한 소설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두 종의 조선문학집에 실린 그의 소설이 모두 도시가 아닌 조선의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과 동물과의 애착을 그린 작품이라는 것은 일본인들이 ‘조선반도작가’ 이효석의 작품에서 보고자 하는 측면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다.¹⁷ 이효석은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했고, 대학재학시절 일본어로 시를 창작했었을 만큼, 일본어로도 문학작품을 창작할 능력이 있었기에 일본문단진출이 꿈같은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내지문단’은 그가 지향하는 서구 문단에서도 조선 문단보다 그 가치를 더 인정받는 만큼, ‘내지문단’에서 그의 성공은 서구 문단에의 인정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기도 했다. 문제는 그의 작품이 일본문단에서 흥미를 불러일으킬만한 요소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내지와는 구별되는 ‘조선반도’만의 ‘이국색’이었다.

그의 문학에 갑자기 등장한 ‘조선적인 것’이 일본문단진출을 염두에 둔 것임은 일본에서 장혁주와의 만남을 기술한 수필 「춘향전 내연 무렵」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 그는 이 수필에서 장혁주와의 만남을 즐거웠던 경험으로 기억하면서 그의 작품을 두고 “文章などどうでもいゝ文字の琢磨左程大事なものではない、その内容となる幅つたい人生や、大きな主題こそ、望ましく重大なものではあるまいか(글 솜씨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좋다. 문장의 탁마문장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 언어의 탁마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내용과 폭을 매개로한 인생과, 큰 주제야말로 바람직한 증대한 것이 아니겠는가-이하 필자번역)”¹⁸라고 언급한다. 장혁주를 바라보는 이효석의 시각은, 장혁주의 작품을 대본으로 삼고 무라야마 도모요시의 연출로 상연된 <춘향전>의 고품으로 이어진다. 당시 조선에서 기성 문인들은 일본의 극단 新協의 <춘향전>의 연출이나 각색, 그리고 조선의 문학작품을 일본어로, 또 일본의 극 양식의 차용이 부적절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¹⁹ 그러나 이효석은

16 이효석, 「향수」, 『여성』 1939년 9월.

17 일본에서 간행된 두 조선문학선집에 관한 보다 상세한 연구로는 박숙자, 「『朝鮮文學選集』과 文學正典들」,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9집, 2011을 참고하라.

18 李孝石, 「春香傳來演の頃」, 『金融組合』, 朝鮮金融組合聯合會, 1939년 1월, 『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 1908~1945 評論-隨筆篇3, 綠蔭書房, 2002, 15면.

19 당시 『비판』에는 조선의 문인들이 장혁주 원작, 무라야마 도모요시 연출의 「춘향전」을 감상한 후 이를 논하는 좌담회인 「新協 “春香傳”座談會」가 실린다. 조선 문인들은 「춘향전」을 두고 연기력과 기술상의 우위는 인정하였으나 조선의 생활방식을 일본어와 일본식으로 번역하여 연출하는

다른 문인들이 증점적으로 비판했던 <춘향전> 연출이 이 극이 가지는 최대 장점이라고 평(高評)한다. 다른 조선 문인들에게는 부자연스러웠던 ‘조선적인 것’의 ‘일본식 재현’에 이효석이 매혹된 까닭은 그 역시 <춘향전>이 그랬던 것처럼 조선적인 것을 일본인들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문학창작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1939년 2월에 「은빛송어」를 일본어로 창작하여 일본의 잡지에 발표한 그의 이력을 고려해보면 「춘향전」을 감상했었을 1938년 10월은 그가 「은빛송어」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이다. 그에게 장혁주의 문학작품과 <춘향전> 공연은 일본어 작품창작방향에 중요한 참조점이 될 만했다.

「녹색탑」은 이효석의 다른 일본어소설과는 달리 ‘조선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효석이 항상 보편적인 이상으로 상정하던 서구의 문학, 그 중에서도 영문학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녹색탑」은 황국신민화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창간된 『국민신보』에 연재되었던 만큼, 「녹색탑」역시 당시 총독부가 주력하던 내선일체 정책 중 하나인 내선결혼을 중요한 소재로 삼는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두 남녀의 애정성사과정을 살펴보면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두 사람의 서로 다른 호적은 영문학 애호가라는 동질성 앞에서 크게 문제시되지 않고, 마치 내선동조론을 연상시키는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수혈장면에서도 내선인의 ‘피의 동질성과 결합’이 강조되는 대신, 두 사람이 육체의 접촉보다 ‘피’라는 더 높은 수준에서 합일을 이루었다는 측면이 강조된다. 이효석의 일본어 소설 중 가장 총독부 정책에 친화적이어야 할 「녹색탑」이 오히려 다른 소설보다 총독부 정책과 소원하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녹색탑」에서 ‘내선연애’나 ‘내선동조론’과 닮아있는 사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총독부 정책과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형상화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평등한 애정관계의 조건으로서의 영문학

앞서 언급한대로, 이효석의 문학과 수필, 그리고 평론에서 영문학을 포함한 서구문학에 관한 언급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학 뿐 아니라 서구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그는 「녹색탑」과 유사한 시기에 발표한 「벽공무한」, 「풀잎」에서도 두 남녀의 사랑을 이어주는 매개로 서구의 음악과 영문학을 등장시킨다. 이효석의 「녹색탑」에 등장한 영문학은 이효석의 그간 문학창작경향을 고려해보았을 때 낯설지는 않으나 황국신민화, 내선일체를 독려하고 서구열강과 일본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던 당시 상황에 관한 논문들이 주로 실리던 『국민신보』에 영문학을 연구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점은 상당히 낯설다. 또한 이 소설에서 영문학은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으로 등장하므로 그것이 가지는 함의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민이 연구하는 영문학 분야는 엄격히 말하면 영국의 문학이 아니라 아일랜드의 문학이다.²⁰ 영민은 「데아드라의 전설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쓰고 있는데, 데아드라의 전설은 아일랜드의 고대 신화 중에서도 가장 많이 소개되었고 아일랜드인의 불굴의 저항정신을 잘 보여준다는 이유로 아일랜드 독립투쟁이 치열해지던 1880년대 초부터 독립을 쟁취한 1922년 사이에 다양한 문인들에 의해 변용되어 소개되었다.²¹ 영민이 쓰는

문제, 연출자의 작품이해수준, 가부키적 기법의 적절성을 두고 많은 비판이 있었다. 新協의 「춘향전」에 관한 당대 반응에 관한 연구로는 문경연, 「1930년대 말 <신협(新協)>의 『춘향전』 공연 관련 좌담회 연구」, 『우리어문연구』 36집, 우리어문학회, 2010을 참고하라.

²⁰ 아일랜드 문학자로서의 영민은 경성제국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아일랜드 문인 중 한명인 싱을 소재로 졸업논문을 제출한 이효석이 전기적 사실과도 맞물린다.

²¹ 이세순, 「W. B. 예이츠의 운문극 『데어드라』 -로맨스에서 비극적 환희로」, 『현대영미시연구』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되어있지 않지만, 그가 논문을 쓰는 와중에 예이츠와 싱의 작품을 계속 참고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논문은 예이츠와 싱이 데아드라 전설을 소재로 창작한 극에 관한 연구이다. 예이츠의 경우는 1907년에 「Deirdre」라는 제목으로, 싱의 경우는 그의 사후인 1910년에 「Deirdre of the sorrows」라는 제목으로 데아드라 전설을 각색한 그들의 희곡이 각각 상연되었다.

아일랜드 문학은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지향하는 『국민신보』의 취지에 맞지 않는 소재였다. 최재서는 「녹색탑」이 발표된 2년 후인 1942년 6월 『국민문학』에 게재한 「조선문학의 현단계」라는 글에서 아일랜드 문학이 비록 영어로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반영국적인 측면이 존재하기에 조선문학은 반영국적이지 않고 영국의 한 지방으로서의 지역적 특색을 갖춘 스코틀랜드 문학을 지향해야한다고 언급했었다.²² 싱을 대상으로 한 논문으로 경성제국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이효석이 아일랜드 문학, 특히 데아드라의 전설을 다룬 문학이 가지고 있는 저항성을 몰랐을 리 없다. 그가 영민을 싱과 예이츠의 극을 연구하는 연구자로 설정한 배경에는 그의 문학을 일본의 국책 협조와 분리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설이 검열에 걸리지 않았는데, 표면상으로는 내선일체 정책에 부합하는 소재를 다루고, 예이츠와 싱의 희곡 그리고 데아드라의 전설이 가지는 아일랜드의 독립운동과의 관련성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소설 안에서 총독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언급 역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요코를 매료시킨 아일랜드 근대문학연구자 영민의 모습은 둘의 사랑을 내선일체와는 다른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아일랜드 근대문학을 매개로 이어진 둘의 사랑은 내선일체의 맥락에서 벗어나있다. 이 소설에서 여전히 보편으로서 지향해야할 진범으로 형상화된 서구 문학인 영문학 앞에서 영민과 요코는 지역적 맥락을 초월한 한 개인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영문학이라는 보편의 앞에서 조선이나 일본 같은 특수성의 지표들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그저 인간이라는 보편성의 기호들만이 남는다. 이처럼 「녹색탑」에서 이효석은 일체의 황국신민화 정책을 표방하는 포즈만을 취하고, 정작 그 내용은 담아내지 않는 방식으로 총독부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총독부정책을 구현해내는,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모순되지 않는 방식을 재현해낸다.

4. 애정의 완성으로서의 수혈

이효석은 소설에서 “육체”의 형상화를 누구보다 중시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1938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조선일보에 3회에 걸쳐 연재한 「西歐精神과東方文化-肉體文學의傳統에 대하여」에서 소설 안에 그려진 육체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그리스 문학 전통에서부터 서구 문학 사조들의 변형에 주목하면서 근대 문학 발흥 이후 나타난 육체보다 정신을 중시하는 자연주의 경향도 결국 육체를 중시하는 ‘디휴메나이징’ 운동으로 환원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소설에서 육체가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문학 사조에서 육체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강조한 그의 이 평론은 1938년 3월 6일에 『조선일보』에 게재한 「健康한生命力에의追求-卑俗하게感想함은讀者의虛物」이라는 글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당시 이효석의 소설을 두고 성적 욕망에 탐닉한다는 등, 지나치게 애욕적이라는 등과 같은 다른 문인들의 평가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소설에 형상화된 애욕을 선정적으로 해석하는 평자들을 비판하면서 애욕은 인간의 본연적인 면모이자 생명력을 나타내주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본다. 그는

제15권2호, 2000, 135-136면 참고.

²² 崔載瑞, 「朝鮮文學의現段階」, 『국민문학』, 1942년 6월.

애욕의 장면을 소설 안에 삽입하기 꺼리는 작가들에게 창작을 그만두라고까지 단언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면모의 형상화를 본연으로 삼는 문학에서 애욕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녹색탑」에 등장하는 수혈장면 역시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육체성을 중시하는 이효석의 문학과 상통하는 면이 존재한다. 이 소설에는 ‘내지’와 ‘외지’간의 차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내지와 외지간의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려져 있다. 요코의 자살소동 전, 영민이 제국대학 강사임용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學部内のいろいろと微妙な空氣(학부내의 여러 가지와 미묘한 공기)”²³, “特殊事情”²⁴과 같은 애매한 표현으로 처리되어있고, 영민의 임용이 소문으로 인해 좌절되자 마키가 실력범위로 인사를 결정해야하는 원칙이 무너졌다며 영민의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법한 일로 간주하고, 다키가와가 하나이와 영민의 호적과는 상관없이 둘 모두 요코를 아프게 만든 사람들이라며 문전박대하자 오히려 하나이와 영민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던 유대가 싹튼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상 내지인과 외지인이라는 구별은 소설의 전개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등장하지 않는다. 「녹색탑」의 수혈장면은 조선과 일본민족이 서로 피를 교환할 수 있을 만큼 같은 혈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선일체정책과 표면적으로는 상통하는 점이 있을지는 모르나, 앞서 언급한 이효석의 육체관과 「녹색탑」에서 육체적 접촉이 가져다주는 인간관계의 변화 측면을 고려할 때 이것은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내선일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시켜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피부와 피부가 닿는 것만이 아닌 몸을 순환하는 혈액과 혈액의 결합이라는, 수혈장면이 보여주는 보다 내밀한 ‘육체적’ 결합의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녹색탑」에서 육체의 매력은 사람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등장한다. 영민은 같은 학교 학생인 최철에게 민자작 부인이 영민을 그녀의 딸 소희의 남편으로 삼을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まろで、品物のよりとりぢやないか。(내가 물건처럼 취급받는 것이 아닌가)”²⁵라며 중매결혼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에게 연애감정을 품고 있는 소희 덕분에 그는 소희와 자주 마주치고, 급기야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결정적으로 그가 소희에게 매혹을 느끼는 계기는 목욕을 마치고 샤워가운만을 입고 나온 소희의 모습을 보았을 때이다. 영민은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매혹적이며,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여긴다. 그에게 육체란 자기 자신을 확증해주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며, 연애관계에서도 성적 매력의 측면을 뛰어넘어 상대방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육체를 중시한다.

영민은 이미 소희의 육체적 매력에 매혹된 바 있었던 만큼, 요코와 그의 사랑이 소희에게서 느낀 매력보다 더 높은 레벨에서 성사되려면 단지 육체와 육체의 접촉 이상으로 더 차원 높은 육체적 접촉이 필요하다. 「녹색탑」의 수혈장면은 보다 내밀한 육체적 접촉의 일환으로서 등장한다. 수혈은 서로의 육체적 매력과 친밀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수혈 과정에서 영민이 “自分のからだの生命力が、同じ量だけそつくり、洋子のからだに植ゑ込まれたのだ、と思ふと、ふしぎと元氣(자기 몸의 생명력이 같은 양만큼 그대로, 요코의 몸에 깊이 삽입되어지는

23 李孝石, 「綠の塔」, 『國民新報』, 1940년 1월 21일(43호), 3회, 『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 1908~1945 セレクション1, 綠蔭書房, 2008, 283면.

24 李孝石, 위의 책, 284면.

25 李孝石, 위의 책, 273면.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상하게 힘)”²⁶이 나는 경험을 한 것은 그가 수혈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성스러운 일이자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보다 긴밀히 이어지게 되었다는, 차원 높은 육체적 결합의 쾌감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수혈 이후, 요코가 조선에서의 기억을 잊고 도쿄에서 새출발하기를 바라던 다키카와 역시 요코와 영민의 관계를 인정하고, 하나이 역시 영민이 요코의 배우자로서 적임이라고 인정한다. 수혈은 두 사람의 보다 차원 높은 육체적 결합, 그리고 이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서로가 ‘운명’처럼 이어져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1919년 3.1운동 이후로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문제가 첨예한 안건으로 등장한 이래,²⁷ 혈통주의에 기초한 호적제도 아래 조선인을 같은 조상을 가진 동족으로서 편입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분분했다. 중일전쟁 이후 황국신민화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내선일체의 문제는 거론되기 시작하였는데, 이효석은 육체적 친밀감이라는 보편적 인간의 가치 앞에서 내선일체가 전제하는 내지인과 외지인 사이의 위계를 무너뜨려버린다.

²⁶ 李孝石, 위의 책, 416면.

²⁷ 今西一, 「帝国「日本」の自画像-1920年代の韓國<同化>論」, 『世紀轉換期の国際秩序と国民文化の形成』, 柏書房, 1999 참고.